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원시보 야고보

(1730-1799)



원시보는 충청도 홍주 응정리의 양인(良人) 집안 출신으로 60세가 다 되어서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시보'는 그의 관명(冠名)이다. 그는 입교하자마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재산을 희사하고 금요일마다 단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 1795년 무렵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만났을 땐 첩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성사를 받지 못하자, 집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첩을 내보냈다.

1797년 정사박해가 일어났을 때, 원시보는 체포되어 덕산 관아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미 67세의 노인이었지만, “천주를 섬기고 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천주교를 봉행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그 후로 온갖 혹형이 가해져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으니, 때는 1799년 4월 17일(음력 3월 13일), 그의 나이 69세였다. 순교 뒤 그의 육신은 신비로운 광채에 둘러싸인 거 같았으며, 이를 목격한 50명가량의 가족은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었다고 한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부활 제6주일 · 청소년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이사 48,20 참조

환호 소리 울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15,1-2.22-29

화답송

시편 67(66),2-3.5.6과 8(◎ 4 참조)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

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묵시 21,10-14.22-23 (또는 22,12-14.16-17.20)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요한 14,23L-29 (또는 17,20-26)

영성체송

요한 14,15-1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할레



갓난아기의 할레

우리와 유대인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할레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에는 차이가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위생상의 이유로 포경 수술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계약의 표징으로 탄생 여드렛날 할레를 행합니다. 노아 계약의 표징이 무지개였듯(창세 9,13), 아브라함 계약의 표징으로는 할레가 주어졌습니다(17,10-11). 말하자면, 할레는 몸에 찍는 계약서의 인증 도장과 같은 것이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기 몸에서 할레 자국을 볼 때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억하고 되새깁니다. 이런 중요성을 반영하듯,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이렛날 취하신 안식에 따라 모두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도 할레는 허락됩니다(요한 7,22).

다만 할레는 이스라엘만의 독자적 전통이 아니라 기원전 3,000여 년부터 다수의 고대 근동인이 행하던 관습입니다. 이집트, 에돔, 암몬, 모압 등에서 할레를 하였고, 헤로도토스의 『역사』(2,104)에 따르면 페니키아인도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 할레를 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대개 혼인할 즈음, 곧 사춘기에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할레를 혼인 생활을 잘 영위하도록 준비하는 단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필리스티아인(판관 14,3)과 메소포타미아인은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할레가 이스라엘 고유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다 돌아온 기원전 6세기 이후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은 육의 할레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할레를 받아야 계약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예레 6,10). 말하자면, 육신의 포피뿐 아니라 마음의 포피도 벗겨야 하느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가슴에도 새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레위 26,41-42; 신명 30,6). 예레미야보다 몇 세기 뒤에 활동하는 세례자 요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백성에게 경고하였습니다(마태 3,9).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계약의 정신을 망각하고 형식에만 집중할 위험이 늘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합류하려면 할레를 받아야만 했으나(탈출 12,48),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진 신약 시대에는 육의 할레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겉모양을 갖추었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살갗에 겉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할레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참유대인이고,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레가 참할례입니다.”(로마 2,28-29)라고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신앙 공동체는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레를 통해 누구든 합류할 수 있게 되었고(2,29), 계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육으로 표시하는 할레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1)

「교회헌장」 7항 전반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신학위원회가 작성한 「교회헌장」의 초안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대한 매우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안에 나오는 바오로 서간의 비유들은 경우에 따라 교회의 통치 직무를 설명하는 차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헌장」 7항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대한 초안의 내용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상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상은 6항에서 열거하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표상들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6항과 7항의 표상들 모두 교회를 설명하는 상호보완적 도구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 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그리스도의 지체들. 서로 다르지만 한 몸으로 일치되어 있다.

7항은 이전의 항들에 비해서 여덟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매우 긴 항입니다. 먼저 첫 단락은 성자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어 새사람으로 변모시키셨다고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불러 모은’ 당신의 형제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당신의 몸을 이루셨습니다. 「교회헌장」은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시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성사들을 통하여 신비롭게 결합합니다. 신자들은 세례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체 성사를 통해 주님의 몸을 모신 신자들은 주님과 친교를 이루고 신자들 사이에 친교를 이룹니다. 신자들은 하나의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이니 여럿이지만 하나입니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지체는 여럿이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양한 신자들은 각자 맡은 직무도 서로 다릅니다. 한 분이신 성령께서 여러 가지 선물을 교회에 유익하도록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중 사도들이 받은 은총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성령께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이끄십니다. 그 성령께서 당신의 힘과 지체들의 내적 결합으로 신자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신 직무와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한 것으로, 여러 지체로 되어 있는 몸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봉사의 도구입니다. 한 지체의 고통과 영광은 모든 지체의 슬픔이요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골로 1,18)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곧 하나님의 성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는 모든 이에 앞서 계시며,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몸을 당신께서 받으신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

어이하여 나 이토록 당신 사랑하는지!

소화 테레사로 알려진 리지외의 성녀 아기 예수의 테레사가 임종을 앞두고 병실에서 쓴 시의 한 구절입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머니는 아이와 더불어 울며, 그 고통 함께하여야 하리. 오, 사랑하는 어머니, 낯선 강가에서 당신 곁으로 날 이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 흘리셨나이까!”

어머니라니요. 네 살 때 돌아가신 테레사의 엄마를 칭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시구절의 어머니는 바로 성모님입니다. 어린 테레사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평소 엄마가 의탁하던 성모님을 부르며 자신의 어머니가 되어 달라고 청했습니다. 성모님은 테레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전부였습니다. 그분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기도하며 성녀가 된 겁니다. 가르멜회에서는 테레사를 ‘작은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모님은 저희 가정에도 오셨습니다. 저와 가족의 진실을 외면하며 아파하던 그 시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로 헤아려 줄 마음의 여유도 없었거니와 의지할 대상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기에 가족의 결핍 안에 성모님을 초대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레지오를 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성모님과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본 터라 배운 대로 따라 한 겁니다. 엄마에게 물려받은 성모님께 대한 신심과 사랑은 저를 남다른 기도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두 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모님을 찾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곁에 있어

주질 못해 가장 가까운 엄마에게 의지해본 적이 없었던 거지요. 어린 테레사처럼 엄마의 빈자리에 성모님을 모시고 모녀 관계를 맺었다면 덜 외로웠을 텐데요. 그런 저희 두 딸과 배우자가 성모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계기는 큰 아이의 대학 입학이었습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온 가족이 성모님 앞에 모여 묵주기도 15단을 바치던 중 그토록 원하던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리둥절하던 큰딸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려운 처지에도 성모님께 의탁하고 하느님께 기도하며 성가정을 이뤄야 한다는 것ですよ. 저는 성모님께 기도할 때마다 ‘묵주기도의 모후여, 배우자와 두 딸에게 묵주기도가 맛있어지는 은총을 주세요.’라고 청했습니다. 지금도 묵주를 쥔 배우자와 큰 딸이 9일 기도를 바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합니다.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슬며시 고개를 들 때도 있지만 자제합니다. 성모님의 아들, 딸들이니까요. 친정엄마는 “아이고, 성모 어머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앓으나 서나 성모님 생각에 매양 행복하십니다.

어린 테레사가 엄마를 잃은 상실의 자리에 성모님을 모시고 교감했듯이 저 역시 친정엄마에게 물려받은 성모님의 사랑으로 내면의 결핍을 메우곤 합니다. 친정엄마와 제가 그랬듯이 배우자와 두 딸도 ‘오, 어머니, 어이하여 나 이토록 당신 사랑하는지!’라고 고백할 날이 오겠지요. 그러겠지요. 벌써 5월의 끝자락입니다. “오 어머니, 당신의 계절인 5월,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



교구 소식

청년 피정 '희망의 순례길' - 노틀담 수녀회와 함께하는 실천교리

일시 5/31(토) 19시~20:30

장소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

대상 고3, 청년 (만 17~40세)

회비 무료

문의 031-850-1460 청소년사목국

신청 ▶



고3, 일반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6/1(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전시] 의정부가톨릭미술가회 제5회 정기전 - 빛+그리다

일시 6/4(수)~7(토), 10시~18시

장소 고양 아람누리 갤러리누리 (일산동구 중앙로 1286)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6/13(금) 15시

장소 의정부 주교좌 성당

최대한 신부와 함께하는 인문학 특강

주제 성녀 에디트 슈타인과 함께 걷는 길

일시 6/12(목), 7/10(목) 20시

장소 백석동 성당 대강당

교재 「침묵 그리고 은총의 빛」

회비 3만원 (현장 접수)

문의 031-908-6811 백석동 성당 사무실

청년 전례 아카데미 2 - 르네상스와 성 베드로 성당

A차: 6/14(토) 15:30~17시, 청년센터 에파타 (의정부)

B차: 6/21(토) 15:30~17시,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

강사 강한수 가롤로 신부 (사목연구소 및 건축신학연구소 소장)

대상 청년 및 교리교사 (선착순 30명)

회비 1인 2만원

문의 031-850-1460 청소년사목국

※ A차, B차 동일한 교육입니다

신청 ▶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6/9(월)까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조희중 사도요한, 임병진 베드로, 진해주

문의 031-850-1507 (주말, 공휴일 휴무)

전신자 성경 읽기 5/25(주일)~31(토) : 요한 9,13-34



5/31(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담화] 2025년 청소년 주일 담화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에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QR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5/30(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믿음과 용기의 여인들
7형제의 어머니와 안중근 어머니 조마리아
강사: 두현자 올리안나
문의: 010-2127-0032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제주교구성지순례 (추차도포함):
6/21(토)~23(월), 7/1(화)~4(금)
여름피정(우도섬포함): 7/18(금)~20(주일),
7/22(화)~24(목), 7/26(토)~29(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청주 조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 피정

일시: 매월 마지막(토) 14시 ~ (주일) 14시
장소: 조정성령회관
회비: 2만원 (청소년 무료) [1박 3식]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6/26(목)~28(토) [2박3일]
영신수련피정: 6/24(화)~7/2(수) [8박9일]
사계절하루피정 '여름': 6/14(토)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문의: 010-9099-2337, www.jesumaum.org

성 베네딕토 영성센터 탐방 및 성지순례

6/21(토)~23(월): 춘천15, 성내동
8/15(금)~17(주일): 대구17
10/18(토)~22(수): 울릉도, 독도
출발: 가톨릭센터 후문 (서울 명동)
8/28(목)~9/3(수):
백두산, 브뤼기에르주교의 죽음의 길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제주 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추차도포함 생태순례: 6/15(주일)~17(화)
우도섬포함 여름피정: 7/31(목)~8/3(주일)
생태순례: 9/5(금)~7(주일), 9/20(토)~22(월)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천마 성당 예수성심성월 성령 하루 피정

일시: 6/6(금) 09:30~16:30 / 장소: 대성전
강사: 김정희 루시아 수녀, 김대영 베드로 신부
미사: 하정호 안드레아 신부 (천마 주임)
회비: 5천원 (점심 제공)
문의: 010-9770-0146 박 데레사

성령 안에서 치유회복 피정

날짜: 6/14(토)~15(주일)
장소: 아론의집 (의왕시)
주제: 새롭게 하소서
강사: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
회비: 12만원 (선착순 100명)
문의: 010-6366-4022 김성철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

효소단식: 5/29(목)~6/1(주일), 6/26(목)~29(주일)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예레미야서:
6/6(금)~8(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의정부교구 5지구 영성 피정

일시: 5/26(월) 13:40~16:30
장소: 화정동 성당 403호
강사: 양종석 베다 신부 (강의와 안수)
문의: 010-8917-0090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영신수련 피정: 6/13(금)~15(주일) [2박3일]
엄마와 딸(미혼) 피정: 7/5(토)~6(주일) [1박2일]
장소: 서울 오류동 (1,7호선 온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가정선교회 6월 피정

성가정 영성 피정: 6/4(수) 10시
송봉모 신부, 이해인 수녀, 윤창호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요 미사: 6/7(토)
김성대 신부, 김정희 수녀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6/21(토) 한철호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시간: 12:30~17시 / 장소: 가톨릭회관 1,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별내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일시: 매주일 11시 교중 미사
자격: 전공자, 성가대 경력자 우대
서류: 자원봉사 신청서, 교적 증명서, 이력서
접수: 이메일 petersmc@naver.com
서류 심사 후 면접 (개별 통보)
문의: 010-9089-2271 단장

성체조배 교육 8주간

일시: 6/7~7/26, 매주(토) 10:30~13:30
장소: 스승예수의제자수녀원 (4호선 미아역)
주제: 성체조배 - 기도에 관한 교육
강사: 김 마리아 제수이나 수녀
문의: 010-9742-3842, 02 984-4801

성경통독 & 길잡이 맥 도형틀

성경을 읽고, 살고, 선포!
도형틀(마인드맵)을 통해 각 장의 내용을 외우며 통독
일시: 6/4(수)부터 [오전] 10시~12시, [오후] 18시~20시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샘 (중동역 5분거리)
대상: 누구나 / 회비: 1만원 (교재비 2만원 별도)
준비물: 성경 / 문의: 010-3248-9705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시스피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 혼성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 연주 (고양 아람누리)
문의: 010-9842-8818 (남성단원 환영)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영성-철학상담: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접수: 5/21(수)~30(금) / 전형: 6/14(토)
문의: 02-705-8668~9

복음화학교 제43기 개강

복음화 사도회는 신자들의 새로운 복음화와 복
음적 삶의 실천을 통해, 이웃에 복음을 전파하는
신자 재교육을 위하여 복음화학교를 개강합니다.
5/27(화) 19:30, 호평동 성당
6/4(수) 11시, 교구청
6/10(화) 11시, 마두동 성당
문의: 010-5182-3066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상시 (상담 후 결정)	미리내 수도회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캠프모집

미국·아일랜드 기숙사 학교, 초3~고1
문의: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례지교회 해외학교법인

2025 어머니·아버지학교 온라인 Zoom 교육

주제: 자녀에게 신앙 이어주기
일시: 6/27~7/18, 매주(금) 19:30~21:30 [4주]
강사: 조재연 신부, 천진아 연구원, 이세라 연구원
접수: 6/22(주일)까지 / 회비: 4만원
주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햇살사목센터
문의: 02-744-0840
※ 사전모임 (6/25(수) 20시~20:45)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백두산 평화 순례

날짜: 8/27(수)~31(주일) [4박5일]
일정: 연길, 도문, 용정, 백두산, 통화, 집안,
단동, 대련
대상: 민족화해에 관심 있는 누구나
회비: 175만원 (1인 1실), 150만원 (2인 1실)
인원: 선착순 30명
기타: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문의: 031-941-6238 민족화해위원회

행신2동 성당 관리인 채용

자격: 고졸 이상, 세례 받은 교우
업무: 시설관리, 영선관리, 경비 등
접수: 6/20(금)까지
문의: 031-979-4071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제26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캐나다: 토론토대 영어캠프, 캐나다 및 미동부 탐방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
손흥민 토트넘, 서유럽 투어
문의: 02-734-0999, www.pbccamp.com

에파타 합창단(홍성) 정기단원 모집

연습: 매주(금) 19:30
장소: 녹양동 성당 3층
인원: 각 파트 〇명
문의: 010-5610-2327 박준희 스테파노

안내 · 기타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코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상담자: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미리 준비하는 추석연휴 순례
10/3(금)~13(월) 중앙아시아 (498만원)
10/7(화)~12(주일) 필리핀 (205만원)
10/7(화)~10(금) 중국 상하이 (168만원)
10/7(화)~10(금) 홍콩, 마카오 (189만원)
문의: 02-2281-9070

성심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18(목) 이탈리아 성체기적성지 (9일, 아시아나)
지도: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9/4(목) 북유럽의 진주 - 발트 3국 (9일, 460만원)
10/8(수) 추석 특선 - 일본 나가사키 (4일, 160만원)
10/18(토) 알프스 주변 수도원 순례 및 성모성지
(12일, 560만원)
11/7(금)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45만원)
12/4(목)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5만원, 대한항공)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9/21(주일) / 비용: 599만원 (+2,1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순례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8(월), 9/15(월) 나가사키 (4일, 119만원, OZ)
9/8(월), 10/20(월)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495만원)
10/17(금) 나가사키 (4일, 139만원)
10/14(화) 코카서스 3개국 (10일, 399만원)
10/13(월), 10/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69만원)
11/2(주일), 11/9(주일)
히년 이탈리아 (7일, 29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15(월) 프랑스 리지외, 루르드 (12일)
9/17(수)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9/24(수) 히년 이탈리아 일주 (11일)
10/9(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2일)
10/13(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10/20(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피정 한마음 사계 피정 - 6월, 7월 (대침묵 피정)

주제	일시	강사
예수 성심을 닮은 신앙인의 삶	6/6(금) 16시 ~ 8(주일) 13시	김경진 신부
사랑을 만나다, 사랑을 살아가다	7/4(금) 16시 ~ 6(주일) 13시	김성우 신부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신청 ▶



김경진 베드로 신부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교육담당



김성우 이사악 신부
청주교구
가톨릭사회복지연구소장

마침 영광송 (Doxologia Finalis)



미사 중 감사기도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마침 영광송’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사제는 성반과 성작을 받들어 올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영광송이란 공적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거나 찬양하는 기도 또는 노래를 말합니다. 주요 기도를 영광송으로 마치는 관습은 이미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기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편을 들 수 있는데, 원래 다섯 권의 소책자였다가 한 권으로 합쳐진 시편집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편집은 1~41장, 42~72장, 73~89장, 90~106장 그리고 107~150장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각 부분의 마지막 장, 곧 41장, 72장, 89장, 106장, 150장은 영광송으로 끝납니다. 특히 마지막 150장은 전체가 영광송입니다.

감사기도를 끝맺는 마침 영광송은 매우 오래 역사를 지닌 영광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에 주요 기도를 영광송으로 끝맺는 관습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도인 감사기도를 영광송으로 끝맺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감사기도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구원 업적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기도이기에, 그 구원의 주인공이신 천주 성삼께 감사드리는 ‘감사송’으로 시작하여 ‘마침 영광송’으로 마치는 것은 더없이 적절합니다. 한편, 교회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영광이란 한없는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께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머리이시자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성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제가 마침 영광송을 바치면 교우들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감사기도 끝에 나오는 “아멘”은 성 유스티노의 「호교론」에서도 소개됩니다. 또한 4세기 말 성 예로니모는 감사기도 끝 “아멘”이라는 교우들의 응답이 마치 천둥소리처럼 웅장했다고 전합니다. 교우들은 “아멘”으로 응답함으로써 마침 영광송뿐 아니라 감사기도 전체에 대한 동의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제와 일치하여 감사기도에 능동적으로 참여했음을 표시합니다. 이때의 “아멘”은 미사 전체 중 가장 중요한 기도인 감사기도를 끝맺는 매우 특별한 환호입니다. 이러한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순히 말로 응답하지 않고, 성대하게 노래로 불러 성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행 주 성 당  성모몽소승천	토 요 일	19:00 토요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6월에 기억해야 할 본당 선종 교우

이중철 베드로, 조금희 수산나, 장석준 바오로
장근완 마르첼리노, 김 수산나,
선종한 교우를 위한 미사: 6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례

■ 6월 성시간

일 시: 6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
많은 분 들이 참석하시어 주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6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 청소년 주일 2차 헌금

오늘은 청소년들을 후원하기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당공지

■ 6월 봉성체

일 시: 6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5월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5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2025년 교무금 책정 세대

세대수	책정세대	책정률
76세대	44세대	57.89%

※교무금 책정을 하고 매월 납부하여 주시면 본당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정성 (5월 12일 - 5월 18일)

교 무 금	4건	585,000원
주 일 헌 금		743,000원

■ 감 사 헌 금

이동준	200,000원	김혜진	50,000원
-----	----------	-----	---------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05월 25일	주송자	신은석(안젤라)
	류병운(미카엘), 김인수(미카엘라)	
06월 01일	주송자	전옥자(수산나)
	양경희(루시아), 류은희(소피아)	

- 복음 말씀 -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행주성당의 성역화를 위하여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